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벤쿠버
파견대학	랑가라컬리지	기간	2018.8.5.(토) ~ 2018.8.25.(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p> <p>MANITOBA ST에서 내려 신호등을 한 번 건너면 거기서부터 랑가라 대학입니다. 평지에다가 지었기 때문에 오르막이 없습니다. 시설은 거의 깨끗한 편이고 학교분위기 자체가 평화롭습니다. 크기는 거의 순천향대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p> <p>분반여부는 오티말고 그다음 학교 가는 날에 토익같은 시험을 봅니다. 대신에 듣기평가만 봅니다. 그 결과로 성적으로 반을 분배한다고 했습니다. 오티때 두꺼운 파일 하나를 주시는데, 그걸로 수업을 합니다. 내용 중에는 기본적인 영어 표현, 문화, 말하기 스킬 등이 있습니다. 말하기 스킬 챗터를 수업할 때는 모든 반 전체가 직접 발표를 합니다. 거의 수업할 때는 선생님께서 조를 짜주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반 친구들과 의견을 나눠가며 한 주제에 대해 얘기를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후 주제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면 반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합니다. 수업은 전반적으로 어려운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수업준비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9시에 수업을 시작하면 선생님께서도 5분전에 오시기 때문에 너무 일찍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 반은 책이 무거워서 선생님께 반에 놓고 다녀도 되냐고 여쭙는데, 흔쾌히 허락해주셔서 친구들이나 선생님 또한 책장 서랍에 놓고 다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희가 뭔가를 할 때 음악도 틀어주셨습니다. 저희 반 숙제는 매일 일기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쓰고 나면 선생님께서 건어서 그 다음날 주셨는데, 틀린 문법이나 문장이 있으면 선생님께서 하나하나 고쳐주셨습니다.</p>
Activity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p>-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Kayaking 과 Discover of Vancouver은 캐나다 처음 간 그 주에 했는데, 두 반씩 갔었습니다. kayaking을 할 때는 모자를 꼭 써야합니다. 햇빛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진짜 꼭 써야합니다. 그리고 긴 바지 입는 것을 추천합니다. 종아리부분이 카약 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허벅지 부분에 햇빛이 바로 쬐기 때문에 뜨겁습니다. 카약킹은 한 배에 두 명이 들어가 뒤에 있는 한명이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처음엔 무섭지만 계속 하다보면 재밌습니다. 저는 카약킹이 제일 재밌었습니다.</p> <p>Discover of Vancouver는 두 반이 섞여 한 조를 만들어 주시는데, 저희와 같은 캐나다 학생과 같이 종이에 쓰여있는 장소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빈칸을 적습니다. 게스타운, 캐나다 플레이스, 그린빌 아일랜드 등을 돌아다닙니다. 거의 계속 돌아다니니 운동화 신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린빌 아일랜드는 물가가 너무 비싸므로 그곳에서 무언가 사먹는 것을 추천하진 않습니다.</p> <p>아쿠아리움은 반마다 끝내주는 시간이 다릅니다. 저희 반은 바로 가도 상관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나도 아쿠아리움에서 좀 더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아쿠아리움에서 돌고래쇼도 있고 물개쇼도 있고 4D체험도 있으니 공짜로 간만큼 다 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아쿠아리움은 스텐리파크 안에 있는 것이어서 아쿠아리움이 끝나고 자전거 렌탈샵에서 자전거를 빌려 스텐리파크 한 바퀴를 돌 수 있습니다.</p> <p>Museum of Vancouver는 한국 박물관과는 달리 입체적으로 생겨 재밌습니다. Discover of Vancouver와 같이 종이를 주시는데 박물관을 돌아다니며 답을 적습니다.</p> <p>휘슬러는 곤돌라를 타고 그곳에서 내린 처음 산에서 점심을 먹은 뒤, 다시 리프트를 타고 또 올라갑니다. 리프트 타고 올라가는 산이 정말 좋습니다. 두꺼운 옷을 챙겨가던지 입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p> <p>모든 활동은 공짜이니 입장료같은 것은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도착하고 나서 일주일은 엄청 덥습니다. 아침이 살짝 쌀쌀하긴 한데, 그때도 반팔로 버틸 수 있습니다. 저는 추울 줄 알고 핫팬츠 같은 것을 안 챙겼는데 한, 두 개는 챙기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대신 반이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놔서 엄청 춥습니다. 그늘에 가도 시원합니다. 그치만 추울 때는 또 너무 추워서 기모 후드에 옷을 하나 더 입어야 될 정도입니다. 캐나다는 벌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날씨 좋다고 학교 밖에서 밥 먹으면 벌이 옵니다.</p>

<p>안전</p>	<p>현지 안전 상황</p> <p>거의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달리 가로등이 없는 곳도 많고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할 것 같습니다.</p>
<p>숙소</p>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o) 외부 숙소() 기타()</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제 방은 1층에 있었는데, 캐나다 마지막 주 쯤에 제 방에 벌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알고보니 창문자체가 위애가 부족해 그곳으로 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층이다보니 2층에서 침대 삐그덕 소리나 발소리가 엄청 크게 들립니다. 거기다 문도 이상해서 엄청 짹 닫지 않으면 계속 열려 한 번은 고양이가 제 침대랑 의자 위에 있었는지 털이 온 천지에 다 묻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이나 방에서 거미들을 몇 번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이나 벌 빼고는 불편함 느낀적은 없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불 끄는 곳이 있었고 침대도 엄청 편하고 의자도 쿠션의자로 바꿔주시고 침대 옆에 탁상같은 것도 또 놔주시고 공기 정화나 향 같은 것도 피우라고 (피우지는 않았지만) 주셨습니다. 거기다 저희집에서의 규칙은 자기 전에 거실에서 나왔으면 문 꼭 닫는 정도라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샤워도 제가 원하는 시간대에 할 수 있었습니다. 빨래할 때는 저랑 일본인 룸메가 빨래를 같이 모아 했었는데, 이것도 자유였기에 아무 때나 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에 건조기까지 돌리면 옷에 먼지가 너무 많이 붙어있긴 했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일찍 들어와 같이 저녁 먹고 루미큐브를 할 때도 있었고 제가 영화보고 싶다하면 홈스테이 아빠가 팝콘과 레몬에이드를 만들어 줄 때도 있었습니다.</p>
<p>식사</p>	<p>학교식당(0) 홈스테이(0) 외부식당(0) 기타()</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저는 아침을 꼭 먹는 편인데 캐나다에 와서 매일 시리얼만 먹었습니다. 저희 집은 똑같은 시리얼만 있어서 매일 그것만 먹었고 저는 매일 양이 차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희 집은 저녁 빼고 먹고 싶은 것 있으면 알아서 차려먹으라 해서 저는 더 먹고 싶어도 냉장고를 봐도 대체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매일 시리얼만 먹었습니다. 점심도 샌드위치 아니면 wrap을 먹었는데 진짜 속 안에는 야채, 치즈를 넣거나 어떤 날은 야채, 계란 어떤날은 야채, 치킨 이게 끝이었습니다. 여기서 매일 똑같은 음료수랑 쿨이라던지 사과라던지 주셨지만 저는 양이 안차서 브레이크 타임에 학교 식당에 있는 팀 홀튼에서 빵을 거의 사먹었습니다. 저녁도 집에서 몇 번 먹을 때 치킨 샐러드나 팬케이크가 끝이어서 저는 거의 친구들과하고 밖에서 먹고 들어왔습니다.</p>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저는 걸어서 25~30분 걸리고 버스타면 8분, 7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심지어 버스타고 일직선에 있는 집이라 학교 가기에는 편했습니다. 처음엔 룸메와 같이 걸어다니다가 컴패스 카드가 정기권이라는 것을 알고난 후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캐나다는 존이 나뉘져 있는데 1존에서 벗어나면 추가요금이 붙습니다. 6시 반, 주말부터는 1존 가격입니다. 전철은 거의 자주 오는데 버스는 버스시간표대로 옵니다. 메인스트리트 말고는 한국처럼 몇분 후 도착이라는 표시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여행자보험	1,858,700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	200\$	
쇼핑	92.33\$	
기타 + 선물	253.67\$	
합계	546\$	

5. 출국 전 준비사항

<p>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p> <p>저는 캐나다가 추운 줄만 알고 핫팬츠나 잠옷도 긴바지로만 챙겨갔는데, 짧은거 한 두개는 챙겨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부러 살 생각으로 긴팔을 별로 안 챙겨갔습니다. 맥아더글린 아울렛을 가면 입구에 있는 서비스센터에 가서 여권을 보여주면 10%할인 카드를 주시는데 안 되는 매장도 있지만 되는 매장도 있어서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에 살짝 민감하신 분들은 한국 컵라면 몇 개 챙겨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환전을 너무 많이 하시진 마세요. 캐나다에서 쇼핑을 많이 하시려는 분은 많은 돈을 환전해야겠지만 쇼핑을 엄청나게 하지 않는 이상 돈이 조금 남습니다. 환전한 돈과 마스터나 비자 카드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p> <p>학교에서 나눠주는 컴패스카드는 정기권이니 1존 벗어나지 않는 이상 마음껏 쓰세요. 추가로 돈 내고 싶지 않으면 6시반 이후에 2존, 3존을 돌아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p> <p>홈스테이 가족들에게 수건 빌려줄 수 있는지, 드라이기, 슬리퍼, 샤워 시간, 빨래 이런 것들은 메일로 꼭 여쭙보세요. 저희 집은 수건 빌려줬었는데, 엄청 긴 수건으로 거의 4일</p>

은 썼습니다.

혹시나 플레인랜드 가시려는 분들은 PNE할 때 1시 전에 가세요. (PNE 시즌 아닐때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PNE는 공연이랑 놀이기구 둘 다 하는 건데 1시를 넘으면 게이트 값만 18달러 내야합니다. 그리고 PNE 한 정거장 더 늦게 내려서 좀더 걸어서 주유소에 세븐일레븐 있는데, 그곳에서 티켓사시면 몇 달러는 싸게 살 수 있어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저는 솔직히 영어보단 일본어가 더 많이 늘어서 왔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친구들과 어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다보니 들리는 것도 많고 친구들과 있으면서 일본어로도 말하고 싶어서 영어보단 일본어로 말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수업을 들을 때나 홈스테이 집에서는 영어로만 듣고 말하다 보니 오히려 일본어보다 들리지 않을 때가 많았고 제가 말하고 싶은 문장도 말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홈스테이 딸과 얘기해도 열심히 설명해주는데, 제가 못 알아들으니 맞장구만 칠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살면서 영어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시험 같은 경우 성적 맞추기 위해 공부를 하면 되었었고 제가 만났던 외국인 사람이나 친구도 하루만 만나고 만나지 않았기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지내다보니 문장을 못 만드는 제가 답답했고, 영어가 들리지 않는 제가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말하기 위해 노력했고 듣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가 말하고 나서 발음이 틀리면 선생님이나 홈스테이 가족들이 지적해주셨고 저는 그것들을 익혀갔습니다. 3주라는 시간동안 그렇게 영어실력이 늘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그 짧은 기간이라도 살아봤기에 제가 소통의 답답함을 느껴볼 수 있었고 영어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다짐을 가지며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캐나다에서 지냈던 3주는 너무나도 행복했기에 캐나다가 아닌 다른 외국도 살아보고 싶은 꿈이 생겨 영어를 꾸준히 하여 그 꿈을 꼭 이루고 싶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English Bay</p>	<p>발표한 날</p>
	
<p>플레이랜드에서 놀이기구 타며 찍은 야경</p>	<p>휘슬러 끝나고 한 번 쉬었던 곳에서 찍은 사진</p>
	
<p>캐나다 플레이스에서 한 나이트 무비</p>	<p>랑가라 대학에서 picture 시간에 찍은 사진</p>